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19 세기 예술가에게 경의를 표하는 예거 르쿨트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호쿠사이 ‘아미다 폭포’ 출시

- 케이스백에 호쿠사이의 목판화인 *기소가도 뒤편의 아미다 폭포*를 정교하게 재현한 그랑 퓨 에나멜이 그린 컬러의 기요세 그랑 퓨 에나멜 다이얼과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 기요세, 미니어처 페인팅, 그랑 퓨 에나멜 공예와 관련된 매뉴팩처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 일본에서만 처음 출시되는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동양 예술에 경의를 표하는 예거 르쿨트르는 19 세기 일본 거장 가쓰시카 호쿠사이(Katsushika Hokusai)의 작품을 기리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호쿠사이 ‘아미다 폭포’ 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새로운 모델의 케이스백은 *기소가도 뒤편의 아미다 폭포(Kisoji no oku Amida-ga-taki)*를 재현한 수공 에나멜 미니어처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833 년-1834 년에 호쿠사이가 선보인 8 개의 목판화 연작, *지방 폭포 순방기(Shokoku taki meguri)*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입니다.

약 2000 년 동안 이어진 동양과 유럽 간의 양방향 문화 교류는 동양과 서양의 모든 예술 형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로운 리베르소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 그랑 메종이 받아들여 온 동양과 서양 예술 전통 사이의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 나갑니다. 케이스백에 장식된 동양 예술의 목판 인쇄술 형식에 찬사를 보내는 다이얼은 기요세 및 그랑 퓨 에나멜과 같은 서양의 전통 기술로 완성되었습니다.

일본 거장에 대한 오마주

19 세기에 활동한 호쿠사이의 혁신적인 주제와 색상, 구성을 통해 고대의 목판 인쇄 방식을 대중적인 예술에서 고급 예술 형식으로 승격시킨 소수의 일본 예술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70 대였을 때 선보인 '폭포' 시리즈는 많은 미술사가에게 지금까지 제작된 최고의 풍경화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연작 중 가장 잘 알려진 ‘아미다 폭포’는 주변에서 소풍을 즐기는 인물들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폭포수의 위력과 장엄한 지형에 매료된 작가의 시선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정교함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작품

호쿠사이의 원작이 지닌 힘을 포착해 원본 크기의 1/10 이 조금 넘는 3cm²에 불과한 표면에 디테일을 충실하게 재현해야 하는 예거 르쿨트르 마스터 장인은 모든 디테일을 축소하여 완벽하게 모방할 뿐만 아니라, 에나멜링과는 전혀 다른, 특정 스타일의 목판화 기술을 보는 듯한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나멜 장인은 원래 종이에 인쇄된 작품의 미묘한 뉘앙스와 그라데이션 색상의 특징적인 *보카시(bokashi)* 효과를 재현하는 동시에, 호쿠사이 작품의 특징인 생생한 푸른색과 노란색을 담아내는 특수 기법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는 섭씨 800 도에서 진행되는 총 12-15 번의 개별 가열 작업을 포함하여 수 주에 걸쳐 총 70 시간에 달하는 여러 단계를 세심하게 조율하여 진행됩니다.

각면 처리한 아플리케 아워 마커와 도피네 핸즈가 장식된 리베르소 트리뷰트 다이얼의 간결함은 이러한 장식의 아름다움에 완벽을 더해줍니다. 케이스백의 미니어처 페인팅을 보완하는 다이얼은 풍부한 그린 컬러의 반투명 그랑 퓨 에나멜로 질감을 강조한 기묘세 마름모꼴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100 년된 선반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제공하는 마름모꼴 패턴에는 뛰어난 솜씨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계산된 각도로 다이얼 플레이트를 고정해야 하며, 패턴을 구성하는 60 개의 라인은 각각 세 번의 선반 작업을 거칩니다(총 600 번). 선명한 라인으로 패턴이 완벽하게 대칭을 이룰 수 있도록, 선을 새길 때마다 플레이트를 정확히 같은 각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공정만으로도 약 4 시간의 집중 작업이 필요하며, 그다음에는 최소 6 겹의 반투명 에나멜 층을 더해야 합니다. 각 층은 개별적으로 가열하며 여기에는 일주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에나멜링이 완성된 후 마지막 과제는 인덱스를 완벽하게 적용하고(에나멜의 깨끗한 표면을 통해 미세한 구멍을 뚫어야 함), 레일웨이 미닛 트랙 레지스터를 옮겨 놓는 것이었습니다.

매뉴팩처의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진귀한 수공예) 아틀리에에서 작업하는 장인들의 탁월한 예술성과 기술력을 증명하는,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호쿠사이 ‘아미다 폭포’ 모델에는 예술과 문화 세계에 대한 그랑 메종의 비전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폭포’ 연작의 또 다른 작품을 재현한 2021 년의 *시모스케 쿠로카미야마의 키리후리 폭포(Shimotsuke Kurokamiyama Kirifuri-notaki)*와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가나가와의 거대한 파도(Kanagawa oki nama ura)*를 재현한 2018 년 모델에 이어, 호쿠사이에게 경의를 표하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워치 3 부작을 완성합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호쿠사이 '아미다 폭포'

케이스: 화이트 골드

크기: 45.5mm x 27.4mm x 9.73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방수: 3 미터

다이얼: 마름모꼴 기요세 및 반투명 그랑 퓨 에나멜

케이스백: 폐쇄형 - 그랑 퓨 에나멜 미니어처

스트랩: 블랙 엘리게이터 가죽

제품 번호: Q39334T3

리미티드 에디션: 10 피스



리베르소 소개

1931년, 예거 르쿨트르는 20세기의 클래식 디자인이 된 타임피스인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는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 케이스의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 모델이 되었습니다. 90년이 흐르는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5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가 탑재되었으며, 메탈 소재의 빈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젤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탄생 91주년을 맞이하는 리베르소는 현대적인 스타일에 영감을 얻어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STELLAR ODYSSEY 소개

2022년 예거 르쿨트르는 인류의 시간 측정 방식의 근원에 있는 천문학적 현상에 경의를 표합니다. 매뉴팩처 초기부터 천문학적 기능은 단순한 형태의 문페이스부터 매우 복잡한 퍼페추얼 캘린더, 군시차, 스카이 차트, 달의 교점 주기와 근점 주기에 이르기까지 예거 르쿨트르의 정교한 시계 컬렉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태양, 달, 항성이라는 세 가지 시간 측정법을 모두 마스터한 그랑 메종은 천체 현상을 나타내거나 예측까지 하는, 가장 진보되고 정확한 메커니즘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올해 예거 르쿨트르는 물입형 전시, 비주얼 아티스트 및 믹솔로지스트(mixologist)와의 콜라보레이션, 천체를 주제로 한 아틀리에 앙투안의 매혹적인 디스커버리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테마 이벤트 시리즈, 스텔라 오디세이(Stellar Odyssey)를 선보입니다. 스텔라 오디세이를 통해 손목 위의 경이로운 마이크로 메커니즘으로 재해석된 우주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